

하회마을 여행기

野田 勝利 (富山県)

8년전 여름, 나는 세 번째로 하회마을에 갔다. 왜 같은 곳에 세 번이나 갈까? 한국 사람조차 한번도 가본 적 없는 이도 있을 텐데.... 라고 모두들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어느 잡지에 하회마을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였다. 수백년 전 취락이 지금도 그 모습과 생활을 바꾸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곳. 시대에 물들지 않고 지켜져 온 문화와 풍습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하회마을에 가 있었다.

처음으로 갔을 때. 풍요로운 자연, 문화,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여유롭게 흐르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을 산책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낙동강은 유구히 흘러 가고, 그 후에 600년이라는 역사의 무거움을 견뎌 온 건조물을 봤다. 그 곳은 시간이 멈춰 있었다. 무의식중에 발길이 멈춰졌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기를 방문했다고 한다. 여왕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마을을 걸었을까? 나는 긴 세월을 조금이라도 공유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조금 우려가 있었다.

내 고향에 고카야마라는 오래 된 취락이 있는데, 약 22년 전 이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 국내외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왔다. 그 중에는 주민의 일상을 침범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영망이 되고 불평도 넘쳐났다. 하회마을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해 8월 나는 네 번째로 하회마을에 갔다. 나의 우려는 적중했다. 마을은 사람들로 넘쳐서 마치 명동 같았다. 관광객들은 수박 걸 할기 식으로 구경 할 뿐이었다. 수백 년 계속 된 마을의 생활이나 귀중한 건조물에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을을 산책했다.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다시 이곳에 오는 일은 없을지도....

그러나 어느 여름 5번째로 방문했다. 저녁 늦게 마을에 들어가 아침 일찍 여유롭게 주변을 걸었다. 낙동강의 아침안개가 수묵화 같이 아름다웠다.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 저녁의 안동소주가 몸을 적실 정도로 맛있었고, 안동찜닭과 함께여서 금상첨화였다.

일과 시간에 쫓겨, 인간관계에 지쳐, 마음에 여유가 필요할 때, 나는 그 곳을 방문한다. 여기에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잊을 뻔한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하고 마음을 치유 받는다. 그런 공간이 있다.

밤하늘에서 수천만의 별이 낙동강에 떨어졌다. 상상을 넘어서는 광경이었다.

시원한 나만의 한국여행

澤田 佐代 (武藏大学)

2016년 9월, 나는 혼자서 한국으로 떠났다. 그 때까지는 한국에 두 번 정도 간 적이 있어서 무사히 표를 구매하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제까지와 확실하게 다른 것은 '혼자'라는 점이다. "한국에 왔다!"라는 이 감동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건가. 바로 옆에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어깨를 힘껏 때리면서 소리칠 수 있지만 이번 여행은 혼자 여행이니까 못한다. 일단 혼자서 씨익 웃으면서 걸어다니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 그냥 양손을 비비기로 했다. 여전히 콧숨소리는 거칠지만 이 방법이면 수상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날 저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북촌한옥마을을 향했다. 여행 팜플릿에서 자주 보는 "비탈길에서 보이는 서울타워"를 직접 보고 싶다. 실제로 가보니 한국의 전통적인 민가가 생각보다 아주 많고 멋있다. 또 그 사이에 펼쳐진 골목길은 복잡해서 미로 같았다. 햇볕 속, 땀을 흘리면서 잠시 걸어갔다가 갑자기 나의 눈에 서울의 경치가 비쳤다. 그리고... "서울타워다!!" 이 순간에 달성감과 감동이 단숨에 밀려들었다. 혼자서 비행기를 탔다. 혼자서 서울을 걸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멀리에는 서울타워가 보인다... .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주변에는 예쁜 한복을 입은 사람, 멋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공간에서 나만이 마치 별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얼핏 아래를 보면 양손이 비비적거려 있어서 나는 살짝 웃어버렸다.

북촌한옥마을을 떠나 편의점을 찾는다. 목이 말라서 죽을 뻔한 것을 생각났기 때문이다. 내가 손에 든 것은 바나나우유. 노란 액체가 들어있는 살찐 용기에 빨대를 꽂아 마신다. 응, 시원하다. 그리고 바나나우유를 한 손에 가지고 거리를 산책한다. 아까 와 달리 말상대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지금부터 어디 갈까? 인사동은 어때?" 나의 말에 끄덕이고 있는지, 비비적거리는 나의 양손이 간지로운지, 바나나우유는 그 수면을 흔들어 보였다.

내가 느낀 한국

小川 結莉 (早稻田大学大学院)

혼자 해외에 나갔을 때 길을 헤매거나, 말도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할 일을 겪으신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으로 가득 찬 나라이기에, 실수 한 만큼 한국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연히도 나는 8 월에 한국과 인연이 많았는데, 내가 겪은 8 월의 한국 이야기를 써 보려고 한다.

[2013년 8월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

처음 한국에 온 것은 국제회의를 통해서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을 느꼈다. 한국은 마늘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었었는데, 실제 느낀 한국의 냄새는 샐러드 드레싱향에 가까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 "유리"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한마디도 몰랐던 나는 한글은 ○, △, □ 같은 그림으로 보여서 무섭고, 그래서 영어표시를 열심히 찾은 내 얼굴은 더 무서웠을 것이다. 그래도 유리가게 간판에 써 있는 "유리"라는 내 이름과 똑같은 글자를 보고 친근감이 넘쳐서, 내 인기인 줄 착각하기도 했다. 나와 한국, 인연의 시작이었다.

[2014년 8월 처음 지하철을 혼자 탄다]

1호선은 외국인에게는 좀 어렵다. 잘못 탄 것을 깨달아 급하게 내린 후, 무거운 여행가방을 들고, 전력의 힘을 내어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지나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도와주려고 해 주셨고, 내가 가려는 플랫폼까지 여행가방을 들어다 주셨을 뿐 아니라, 유학생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학교까지 가는 버스 정류장과 버스 번호까지 알려주셨다.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갈 때, 여행가방의 무게가 아주 초과 할 만큼, 내가 받은 사랑은 초과 중량이었다.

[2015년 8월 노부부에게 명동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다]

8월 15일, 지하철 경복궁역 플랫폼에서 노부부가 나에게 "명동은 어떻게 가나요?"라고 질문하셨다. 나는 명동은 가 본 적이 없지만 어디인지는 알아서, "충무로에서 4호선 갈아타십시오"라고 했다. 내 발음 때문에 그런지 "외국인이셨네요. 어디에서 왔어요?"라고 물어 보셨다. 일본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바뀌었다고 하셨다. 손자를 보러 명동에 가는 길이었는데, 아가씨 덕분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고마워 하셨다. 마음이 따뜻해진 좋은 날이 되었다.

나에게 교류는 나라와 나라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작지만 한일의 가교가 되기 위해 일본에서도 노력 중이다.

한국어와 자신감

相澤 紗瑛 (東海大学)

나는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잘 못해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국에 간 적이 있는데 한국어를 쓴 적은 별로 없었다. 한국에 여행을 갈 때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번에야말로 한국어를 잘 써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사람이 눈 앞에 있으면 말이 안 나온다. 용기를 내서 도전한 적도 있지만 내 발음이나 문법이 틀린 것 같아서 잘 통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래서 항상 간단한 말이나 단어만 쓰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 봄에 간 여행은 지금까지와는 좀 달랐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국어를 잘 썼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을 탔는데 돈이 모자라서 내릴 수 없었다. 그런데 역원에게 설명해서 무사히 내릴 수 있었다. 그 때 내가 했던 한국어가 잘 통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좀 생겼다. 그 후에도 여행하면서 한국어를 쓰려는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희가 일본사람이라고 알았다면 일본어를 좀 말해 주거나 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느냐고 물어 주었다. 또 다른 편의점 점원 아저씨는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이미 알았던 것 같아서 내가 계산을 부탁하면 일본어로 말을 걸어 주거나 한국어로 여러 곳을 물어 주었다. 그 아저씨들은 내가 천천히 말해도 잘 들어 주고 이해해 주어서 너무 기뻤다. 또 다른 카페 점원 언니는 내가 산 음료수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그것을 봉투에 넣어 주겠다고 해 주었다. 그 때도 내 한국어가 잘 통했다고 느껴서 너무 기뻤다.

나는 지금까지 내 한국어 능력에 자신이 없어서 한국에 가도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잘 못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자신감이 좀 생겨서 한국어를 더 말하고 싶게 됐다.

또 이번 여행으로 느낀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한국사람들은 내 한국어가 틀리거나 어색해도 내가 열심히 말하면 잘 듣고 이해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틀리거나 좀 어색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어를 많이 쓰려고 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서 충실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놀러 가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시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村上 莉佳子 (東海大学)

여러분은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 시작했습니까? 공부 시작한 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에 콘서트를 보러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콘서트에는 무엇을 하러 갑니까?

저는 지난 6월에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드림콘서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이외의 콘서트에 가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콘서트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로 입장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티켓하고 좌석표를 보면서 겨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시작 시간보다 조금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곤란해하는 저를 보고 그 사람은 영어로 자리를 교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성한 영어로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교환한 자리로 이동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어요.’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저 일본어 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콘서트에 가서 놀란 것이 많습니다. 먼저 이 콘서트는 많은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마다 자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를 응원하기 위한 풍선과 랜턴이 배부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가수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같이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노래하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가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지만 가수와 팬들이 함께 이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콘서트에 가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이해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가면 제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과 저를 이은 인연

木室 精子 (神奈川県)

최 상이 기사님께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저는 7년전에 최 상이 기사님의 택시를 대절한 일본사람인 기무로 세이코입니다. 7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최 기사님과의 반나절이었지만 목포 교외 영암군에 있는 '왕인박사 유적지'로의 여행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됐어요.

2010년 1월 6일, 목포 역 앞의 택시 차장에서부터 왕인박사 유적지까지 가는 길에 기사님은 말을 많이 걸어 주셨어요. 저도 혼자 여행 5일째여서 즐겁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요. 애당초 제가 '왕인박사 유적지'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제 고형 오사카 교외에 있는 공원이 왕인박사와 관계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원은 '와니 공원'이라 불리는데 여름에는 자주 공원 안에 있는 수영장에 가곤 했어요. 그 때 그 공원의 이름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어 '와니'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악어'라는 뜻이니까요. 공원에는 물론 악어가 없어서 왜 그 공원이 와니공원이라 불리는지 계속 궁금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는 그 '와니'란 이름이 한국사람 왕인 박사의 이름이라고 알고 확인하려 가고 싶었어요.

도착한 유적지에서는 왕인 박사가 백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가서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다는 등 박사가 한일간에 이뤘던 많은 공적을 보여주는 전시관이 있어서 같이 봤었지요.

그 전시관에서 제가 놀란 것은 일본의 오사카 히라카타시에 있는 '와니공원'이란 곳에 박사의 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내문에 써 있는 '왕인 공원'은 바로 우리 고향에 있는 '와니 공원'이었어요. 더구나 영암군에 왕인박사 유적지가 세워진 후 계속된 교류가 열매를 맺어 2008년 영암군과 히라카타시가 자매도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때 한 순간에 한국과 저의 거리가 짧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사님도 그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셨지요.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요"라고 말하면서 같이 웃었던 것이 생각나요.

저는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지만 지금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목포에 가서 기사님의 택시를 타고 그 때 추천하셨던 회동신비의 바닷길도 보고 싶어요...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무사히 운전하시길 빌어요.

안녕히 계세요.

2017년 7월 5일 기무로 세이코 드림

나의 진도 이야기

牧山 千春 (埼玉県)

“바다가 갈라지네요. 길이 생기네요. 섬과 섬이 이어지네요.” 덴도 요시미 라는 엔카 가수가 노래한 ‘진도 이야기’다. 20년전쯤 TV에서 훌러나온 이 노래를 듣고 나는 진도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알았다.

그 후 20년 동안 진도 바닷길을 소개하는 기사나 사진 등을 볼 때마다 진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훌러 한국어를 배우게 된 나는 한국에 홀로 여행을 갈 수도 있게 됐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진도 바닷길을 보러 가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유는 바닷길이 생기는 시기는 일 년에 단 몇 번뿐인데다가 조조나 저녁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바닷길은 진도 버스 터미널에서도 상당히 멀다고 한다. 그렇다면 투어로 가자!

이렇게 해서 나는 2016년 5월 드디어 진도 바닷길을 찾게 되었다. 몇 시간이나 관광 버스를 타고 진도 바닷길 해안에 도착했더니 바닷길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관광객들이 바닷길을 걷고 있었다. 해안에는 미역 등 해산물을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으며 스피커에서는 진도지역의 노래, 나로서는 생소한 한국의 트롯이나 ‘진도 이야기’의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이 반복되어 훌러나와 지방색을 자아내고 있었다. 우리는 바닷길 관광용 장화를 신고 썰물로 생긴 바닷길로 걸어 들어갔다. 주위를 보니까 조개를 캐거나 미역을 따는 관광객들도 있었고 낙지를 발견하고 환성을 지르는 젊은이들도 있어 아주 즐거운 분위기였다.

진도와 모도의 중간에는 수심 약 30cm 인 곳도 있고 조류의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들기 시작했다. 밀물이 다시 들어오면 큰일이라서 우리는 갯벌 중간에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그 갯벌에서 얼굴을 들어 여기까지 걸어왔던 진도에서의 바닷길과 모도를 잇는 바닷길을 새삼스럽게 바라봤다.

처음 진도를 알게 된 지 20년, 드디어 바닷길을 찾아오게 된 것이다. 20년전에는 한국말도 몰랐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이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라는 감회와 함께 나는 지난 20년이라는 세월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벅차왔다.